

미세먼지로 상한 호흡기 공짜 자연림이 주는 약 무한정 들이켜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노년분과 산하단체인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는 5월 15일(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재 광릉 수목원을 42명이 참석하여 어르신 봄소풍 나들이에 율창한 수목들이 내뿜은 맑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고 돌아왔다. 출발 당시 금천구 시흥4동 하늘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미세먼지로 시야가 흐려 멀리 볼 수가 없어, 강북도로를 달렸으나 관광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푸른 강물은 볼 수가 없었다. 반쯤 열린 창문 커튼 사이로 갑작스럽게 맑은 햇살이 들어와 고개를 돌려보니 율창한 수목들이 군락지에서 뿜어내는 자연의 신선한 공기에 가슴이 시원했다.

장하다! 순교자 신앙의 열정! 선교 초석이 되었다.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성모 승천 꾸리아는 6월 6일(목)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배론성지와 국립 횡성 숲 체험을 84명 레지오 단원과 협조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Cu. 야외행사를 하였다. 출발 전 본당 주임신부님의 즐거운 여행과 안전을 위한 축복으로 시작하여 차내 간단한 조식과 묵주기도에 이어 야외행사 배경 설명과 함께 유병욱(마르치아노) 단장은 '꾸리아 야외행사는 레지오 마리에 교본에 의하여 연중행사로 용감한 성모님의 군단 사기 향상을 위하여 행동 단원과 협조단원 간 유대 강화는 물론 레지오 확장에 도움 된다. 제천시 소재지에 있는 배론성지는 지형이 배의 바닥 같다 하여 배



론이며, 천주교 신학교의 초석이 된 성 요셉 신학당과 신유박해(1801) 황사영 백서를 쓴 웅기토굴이 있다. 이어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횡성 국제 숲 체험으로 오늘 일정이 되어있다.'란 차내 소개를 하였다. 관광버스는 영동고속도로 거쳐 중앙고속도로 치악산을 지나 신림 IC를 뒤로하고 배론성지에 도착하였다. 최양업(토마스) 신부 기념 성당 앞에서 우리나라 두 번째 서품을 받고 선교사역을 하다 문경 새재에서 과로사로 하느님 품에 가신 성인을 묵상하고 신유박해 실상을 알리기 위해 가로 62cm 세로 40cm 명주 천 위에 13,384자 깨알 같은 글씨를 감감

한 웅기 토담집에서 기록하여 중국 북경 구베아 주교에게 전하기 위해 백서를 작성한 황사영 (알렉시오) 성인의 순교적 노력이 우리나라의 103위 성인반열에 올리기에 살아 있는 역사적 산 자료였다. 오염되지 않은 푸른 야외 잔디밭에서 성지 주임신부님께서 직접 배식한 미역국과 백반을 먹고 나른한 몸을 국립 횡성 숲으로 달려갔다. 도시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오감 체험장에는 숲이 주는 여러 가지 건강 혜택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도시 오염에서 시달린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 모 Pr.팀에서 준비해온 홍어회와 돼지 껌데기가 체험자를 유혹하여 못 먹는 소주 한잔도 숲의 위대함 속에 술기운이 오르지 않았다.



